

쌍계사 보살계법회 4월 18~20일

하동 쌍계사주지 상훈는 4월 18~20일 3일간 정기보살계 대법회를 봉행한다. 행사는 18일 오후 2시 입재법회를 시작으로 20일 오전 8시 대장경 정대불사 및 육조봉찬회 총회에 이어 수계법회가 이어진다. 이번 수계법회에는 조실 고산 스님을 증명법사로 전계대화상 보광 스님, 갈마아사리 지하 스님, 교수아사리 일해 스님 등이 계사로 등단해 경내 금강계단에서 보살계를 수계한다. 집수·문은 부천 석약사, 부산 해원정사, 서울 해법정사, 하동 쌍계사로 하면 된다. 상훈 스님은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무량한 보과 지혜를 닦고 생사해탈의 법연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쌍계사는 1200여 년 전 진감 국사가 창건한 이래 계법의 흥종주 금담 율사의 계맥을 이어온 전법도량이다. (055)883-1901 박지원 기자

부산 최초 우바이중창단 '청공' 창립

3월 30일 창립법회... 우바새 '청공' 과 불음 공양 앞장설 계획

불자로만 구성된 여성중창단이 부산지역 최초로 탄생했다. 불교여성중창단 청공(단장 김선희, 동명불원은 3월 30일 오후 1시 남전동 소재 한 중식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음성공양 봉사활동에 돌입할 것을 다짐했다. 그동안 부산시는 200만 명에 이르는 재가불자들이 거주해 '우리나라 불교의 중심지'라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여러 장의 찬송가 음반을 발매할 정도로 수백 여 개의 남·녀·혼성 중창단이 활성화된 이웃종교와는 달리 불교계는 여성불자들이 구성된 중창단이 전무한 상황이라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성민 지휘자는 "그간 여성중창단이 전무했다는 사실이 불자성악가이자 여러 합창단의 지휘자로서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웠다"며 "앞으로 여성중창단 청공은 기존의 남성중창단인 또 다른 청공과 함께 부처님의 노래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단원이 봉사정신으로 법석이 여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법사 김해 김상사 혜수 스님(가운데)과 김선희 단장(뒷줄 가운데), 지휘자 정성민(오른쪽)과 '청공' 단원들.

음성공양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중창단 청공은 기존의 남성 불교중창단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공의 리더 정성민씨가 주도해, 현재 지도하는 흥불사와 흥제사, 동명불원 등의 합창단 가운데 기량이 뛰어난 13명의 소수정예 중창단원을 선별해 창단했다. 김선희 단장은 "우리는 모두 거룩

하신 부처님의 인연으로 처음 만나, 13명의 단원이 한마음으로 걸음마를 시작하려 한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목소리를 통해 향을 사르고 공양을 올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성공양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청공의 노래를 듣는 모든 불자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신심이 더욱 돈독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중창단 청공은 기존 남성중창단 청공에서 활동 중인 지휘자 정성민, 반주자 김보성을 비롯한 동아대학교 성악가 출신의 김선희 단장(동명불원 합창단)과 흥불사 합창단 출신의 정은아 총무, 오다현(소프라노), 이미경, 그리고 불참회 합창단 출신의 안덕자, 하순임, 흥제사 합창단의 이옥수(알토), 성은화, 광경희 등 총 13명의 신심 깊은 불자합창단원으로 구성했다. 김해 김상사 주지 혜수 스님이 지도법사를 맡아 단원들을 이끌게 된다. 혜수 스님은 "모든 게 이뤄질 때는 순간적으로 이뤄진다. 사람이 태어남과 죽을 역시 잘나잇, 이것이 바로 인연이다. 인연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대다수"라며 "합창의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인만큼 불교여성중창단 청공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도 중요하다. 모두 힘을 합쳐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010)9879-6882(김해의 단장)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해운대 정토회 '법륜 스님 봄 강좌'

수행공동체 해운대 정토회(지도법사 법륜)는 4월 7일~5월 26일 '2010년 법륜 스님의 봄 인생강좌-당신의 인생, 행복으로 디자인하라!'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법륜 스님과 즉문즉설로 진행되며, 기간 내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와 일요일 7시 30분 하루 두 차례 마련된다. 즉문즉설(卽問卽答)이란 부처님 당시의 대기설법(對機設法)의 전통으로,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물어 부처님은 질문자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로 지도한데서 기인했다. 법륜 스님은 "즉문즉설은 자신의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데 훌륭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회를 통해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의문점을 명쾌하게 풀이해 희망의 길로 안내하는 지혜의 샘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2~19일 매일 오후 3시에는 동래 정토회에서도 법륜 스님의 봄 인생강좌를 들을 수 있다. (051)747-9997(해운대), (051)-557-2746(동래) 박지원 기자

휴휴정사 영어템플스테이

부산 범어사 경내 휴휴정사는 4월 한 달간 테마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영어템플라이프는 4월 10일 열리며, 영어로 사찰안내, 발우공양, 스님과의 차담 등을 진행한다. 정기템

플스테이는 4월 17~18일 사찰 문화체험, 암자순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사행템플스테이는 4월 24~25일 참가자들이 금강산 고당봉 산행을 통해 명상수행 법을 배우게 된다. 참가 신청은 범어사 홈페이지 템플스테이 예약란에서만 접수 가능하다. (051)508-5726 박지원 기자

"중생구제와 불국토 건설에 앞장"

부산불교실업인회 창립 19돌 기념법회

부산 불자기업인들의 모임인 부산불교실업인회가 창립 19돌을 맞았다.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운환·영광도서 대표)는 3월 26일 서면 부산불교실업인회관 모교관에서 창립 19주년 기념식을 갖고, 해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들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을 시작으로 강령 낭독, 신입회원 인회헌서, 신일 임원진 임명, 모범회원 표창 및 공로패 수여, 김운환 회장의 기념사, 원허 스님 초청 법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원허 스님은 법문에서 "일주문에는 '입자문래 막존지해(入此門來莫存知解)'라는 문구가 있다. 일주문을 들어설 때 세상에서 가져온 알을 알이 다 버리고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비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부처님의 법문을 가득 담을 수 있다"며 "기업활동으로 바쁘겠지만



김운환 회장(오른쪽) 및 기업인 회원들.

매일 정기법회 만큼은 온갖 지식과 앎을알이를 잠시 비우고, 열정적인 수행정진으로 있고 지낸 불성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스님은 앎의 창시자인 스티븐 잡스의 성공일화를 소개해 불자기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에 앞서 김운환 회장은 기념사에서 "불교실업인회는 부처님의 말

씀을 누구보다 열심히 익히고 선포하는 훌륭한 불자기업인들의 모임인 만큼, 열정적인 기업 활동과 보시를 실천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며 "부처님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중생구제와 불국토 건설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51) 818-9914 박지원 기자

화제의 불화 수월관음도. 가정과 사업장에 꼭 있어야 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어,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녀는 잘 들어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이나 잘 응할 수 있다.」(관세음보살공덕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세상은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한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집안식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교의 佛母金成浩화백에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년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권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능)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 시작 조심.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묶는삼재 2012년.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영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영주는 부처님께 예를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인한남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자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툴팁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공급가격 별도 상담요)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창원 성불사 주지 승지 스님. 평양까지 뚫는다! 가사장삼 마라토너. 2007년 가을, 부산 강서구 경마공원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은 마라토너가 있었다. 가사장삼을 정갈하게 갖춰 입고 존프 로급 참가자들과 선두 대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달리는 이는 바로 '마라토너 스님'으로 유명한, 창원 성불사 주지 승지 스님(사진)이다. 승지 스님이 마라톤을 시작한 계기는 이렇다. 어느 일요일 오전, 속리산 법주사 경내에 북새통을 이루던 관광객들을 마주하면서 부러웠다. 스님은 관광객들을 보고 '저 많은 사람들이 모두 불자들은 아닐 텐데 저들을 포교하면 참 좋겠다'라 생각하면서 장원으로 돌아오던 길에 수많은 마라토너들이 대회에 참가한 모습을 보게 됐다. 스님은 "마라톤 참가자들 속에 가사장삼을 입고 달린다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그것만으로도 포교가 될 것이라 생각해 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실 장삼을 입고 뛰면 속도가 제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마라톤 복장으로 달린다면 개인 건강관리를 위해 뛰는 것 밖에 안 될 것 같아 가사장삼을 모두 갖춰 입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2년간 크고 작은 대회에 참가해 총 1603km의 거대한 길을 달리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노력한 철칙이 있었다. 결승선에 다다르기 전까지 절대 멈춰 서 쉬어가지거나 중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약 3km 지점을 넘어서면 마라토너들은 달리기의 진수를 느



법장 스님이 직접 써준 휘호가 늘 새겨져있다. '추신일미(禪禪一味)' 즉, 달리는 것과 참선은 같다는 가르침이 담겨있다. 승지 스님은 "정진은 편안한 자세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 할 때 깨달아 중생을 제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라톤 자체뿐만 아니라 균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출가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도 포교가 되고, 부처님의 뜻이 되고 향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오늘도 스님은 "하루 빨리 남북통일이 되어 서울에서 평양까지 여러 불자들이 함께 달리는 상상을 합니다. 저의 남은 여생을 마라톤으로 수행정진하고 포교하며 회향하고 싶어요"라며 말했다. 한편 스님은 포교의 발원을 넘어, 국내 200만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달릴 계획을 세웠다. 스님은 4월 2~20일 열리는 장애인축제 '1004달레이 희망의 마라톤'에 경남지역 대표로 참가해 임진각~울산(700km) 구간 중 경남 화개장터~통도사(234km)를 달릴 예정이다. cafe.daum.net/sabee 박지원 기자